

완주 삼례토성, 만경강권 고대 거점성 입증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열고 성과 공유... 토성 내부 구석기 유물 추가 발굴

완주군이 29일 삼례읍 삼례리 1478-54 일원에서 '완주 삼례토성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2025년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된 이후,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이 수행 중인 삼례토성 발굴조사의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학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최인선 순천대학교 교수(한국석곽학회), 박장근 군산대학교 교수(前호남고고학회) 등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완주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삼례토성은 만경강의 북안, 강가 언덕 위에 자리한 고대의 토성으로,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내류와 해안을 있는 거점성(據點城)이었음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삼례토성은 낮은 구릉 위에 축조되었지만, 만경강과 주변 평야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성이 마한 말기에서 백제 초(약 1,500년 전)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영래 선생은 지표조사를 통해 토축성을 내성으로 둔 이중성(二重城)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성의 남쪽 구역, 내성 남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중심토루(흙성), 토석혼축 외벽, 기반부 보강석축이 확인됐다. 중심토루는 기저부의 자연암반 위에 사질토와 점토를 일정한 두께로 다져 쌓은 판축법(版築法)으로 축조되었으며, 확인된 높이는 최대 3.3m 내외였다.

토루 외측은 석재와 점토를 혼용한 석축으로 보강되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석재와 점토를 덧붙여 만든 외벽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외벽의 기반부는 장방형으로 다듬은 대형 면석



완주군이 29일 삼례읍 삼례리 1478-54 일원에서 '완주 삼례토성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성과를 공유했다.

을 2~4단 정도 쌓고, 내부는 자연석·면석·점토다짐으로 단단히 보강한 구조를 보였다.

또한, 토성 내부에서 후기구석기 말기 유물 약 450점(돌날뿔, 숭배찌르개, 종돌날뿔, 잔손질석기 등)이 수습돼 추가 발굴이 진행됐다.

이는 만경강 분류에서 처음 확인된 구석기 유적 사례로, 이 일대가 선사시대부터 인류의 생활 무대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로 평가된다.

이번 발굴 성과를 통해 삼례 지역은 단순한 읍성 기능을 넘어, 만경강 유역의 문화 전파 거점이자 백제 서북 진출과 후백제 왕도 형성에 연계된 정치·군사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삼례토성 일대는 고대 이래 조선시대까지 교통의 요지이자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기능해왔다. 조선시대에는 역참이 설치되었으며, 인근에는 완산 8경 중 하나인 '비비낙안(飛飛落雁)'의 명승 비비정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근현대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구 삼례양수장과 구 만경강철교가 위치해 있어, 삼례토성은 군사·행정·경제·산업유산이 공존하는 통시적(通時的) 문화경관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굴을 통해 완주 삼례 일대가 단절되지 않은 역사적 흐름을 간직한 복합문화유산임이 확인됐다"며, "고대역사문화권과의 연계성이 높은 만큼,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유적의 보존정비 및 주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명소화, 교육·관광 프로그램 확대로 군민이 함께 향유하는 문화유산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삼례토성은 완주군의 역사적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자, 지역문화의 원류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발굴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고,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유적의 보존정비 및 주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명소화, 교육·관광 프로그램 확대로 군민이 함께 향유하는 문화유산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2026년 4월 29일 개막

민성욱·정준호 공동 집행위원장 연임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를 2026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10일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영화제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제27회 영화제는 노동절(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을 포함한 연휴 기간에 열려 국내외의 영화 관객 및 산업 관계자들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최 일정과 함께 민성욱·정준호 공동 집행위원장의 연임도 확정됐다. 두 집행위원장은 2028년 12월 13일까지 임기를 수행하며, 제29회까지 영화제를 이끌게 된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제24회부터 공동 집행위원장 체제로 전환했다. 영화제 출범 초기부터 조직위에 몸담아 온 민성욱 집행위원장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제의 정체성 확립에 주력해 왔다. 또 배우이자 사업가인 정준호 집행위원장은 높은 대중 인지도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외연 확장과 대중성 강화에 기여했다.

두 집행위원장 체제 아래 전주국제영화제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제26회 영화제는 관객 7만 명을 돌파하고 티켓 판매율 81.8%를 기록했으며, 전주만의 색이 뚜렷한 프로그램들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독립·예술영화의 다양성 확대, 관객 친화적 운영 강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영화제 문화 확립 등을 통해 영화제의 정체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한편 조직위는 오는 11월 작품상 공모를 시작하며 제27회 영화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화요간담회, 전북여성리더 플로깅 데이 가져

전북지역 여성리더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현에 앞장섰다.

전북여성화요간담회 회원들이 지난 28일 순창군 일원에서 플로깅(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여성리더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했다.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정전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작된 전북여성화요간담회는 도내 여성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모임으로, 지역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여성 리더십을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농협전북본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플로깅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여성리더들이

ESG 경영의 실천 주체로 나선 상징적인 활동이다. 이에 회원들은 함께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환경의 중요성을 체감하면서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높였다.

한편 플로깅은 스웨덴에서 시작된 환경운동으로, 운동과 환경보호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 캠페인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이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걷기와 환경보호를 결합한 생활 속 ESG 실천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여성화요간담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사회공헌 실천을 정례화하고, ESG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예술인지원사업 여섯 번째 기획전 ‘線, 그리고 墨’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이 예술인지원사업의 여섯 번째 기획전으로 11월 4~9일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線, 그리고 墨’ 전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통 서예의 깊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각과 예술적 해석을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서예는 단순한 문자 표현을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미감을 담아내는 예술의 한 장르다.

이에 따르면 ‘선(線)’의 절제된 단순함 속에서 드러나는 서예의 현대적 매력을 탐구하며, 이번 전시의 주제를 ‘선(線), 그리고 먹(墨)’으로 정했다.

참여 작가들은 먹이 스며들고 번지는 자연스런 우연성과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선’의 변화를 통해 각자의 개성과 감정을 표현했다. 이를 통해 먹이 지닌 고유한 질감과 현대적 미감이 어우러진 서예의 새로운 해석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김연(글씨를 달여먹고, 25년) △김선희(하이볼류 和而不流) △김효정(선물) △서천석(예수) △송완훈(삼여,인사) △유지연(술향기처럼) △이명순(마음) △임선경(나팔꽃) △정선경(내 인생의 변곡점(變曲點)) △최동명(괴석도) 등 총 10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장은성 기자



국보순회전 연계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안역사박물관, 교구재·탁본 체험·전문가 강연회 등 진행

진안역사박물관과 국립익산박물관(관장 김윤림)이 국보순회전 ‘백제명품, 백제문양전’ 전시와 연계해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이 주최하고, 진안역사박물관과 국립익산박물관이 공동 주관하는 2025 국보순회전 ‘모두가 함께하는 180일의 여정〈백제명품, 백제문양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부여 외리유적에서 출토된 국가 지정 문화유산 산수무늬벽돌, 산수조개비무늬벽돌 등 백제문양전 6점을 전시하고 있다.

국보순회전과 연계한 교구재 체험으로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진안역사박물관 교육실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아크릴 분위기 등 만들기 프로그램이 열린다.

산수풍경무늬벽돌 등 문양전이나 진안의 역사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아크릴에 새겨 나만의 분위기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전화 신청(063-430-8085)을 통해, 선착순 57가족(1가족당 최대 4명)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1월 4일과 11월 11일 오후 2시에는 국보순회전 연계 전문가 강연회가 박물관



교육실에서 개최된다.

11월 4일에는 고대 백제의 영역에 속했던 진안에서 백제의 역사문화 전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강연이 진행되고, 11월 11일에는 백제문양전과 유물이 출토된 부여 외리유적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강연이 열린다.

강연회는 사전 신청 없이 백제와 백제문양전 등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보순회전 전시가 종료되는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국보순회전을 관람하는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산수풍경무늬벽돌을 주제로 한 우드엑자 만들기 체험과 문양전 탁본체험도 진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6개국 작가 참여 ‘한지’ 현대 예술 언어로 재해석

전주한지박물관, ‘새로운 모색·IOI 국제아트연합 창립전’ 개최

전주한지박물관은 이달 28일부터 2026년 1월 17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새로운 모색·IOI 국제아트연합 창립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세계 각국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IOI 국제아트연합의 공식 출범을 기념하는 창립전으로,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는 예술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IOI 국제아트연합은 같은 날 전주한지박물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예술을 통한 국제 교류와 문화 협력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공식 출범했다. 연합은 앞으로 공동 프로젝트와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세계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각국의 창의적 감성과 전통을 공유하는 국제 예술 플랫폼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에는 미국, 스웨덴, 프랑스, 중국, 일본, 한국 등 6개국의 작가들이 참여해, 전통 소재인 ‘한지’를 현대 예술 언어로 재해석한 회화, 조형, 사진, 패션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각국의 예술적 정체성과 감성을 담아 한지를 매개로 한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28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한국 대회의 대표인 전영배 군장대학교 교수의 대회 취지 발표로 행사가 시작됐다. 이어 IOI 국제아트연합 대표인 서인석 미국 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 이사장



의 축사, 각국 참여 작가들의 인사와 함께 일본 니시오 주리 작가의 ‘화지 의상 퍼포먼스’가 펼쳐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IOI 국제아트연합은 올해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매년 미국 타코마, 스웨덴, 중국 우한, 프랑스 파리 등 회원국을 순회하며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회원국 간 예술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심포지엄과 공동 창작 프로젝트 등을 추진함으로써 예술을 매개로 한 인류문화의 다양성과 조화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시는 전주한지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이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10-8103)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양모펠트 공예 체험행사 선착순 모집

양모를 갖고 실제 감아지 얼굴을 그대로 본떠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찾아온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11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행사로 ‘감아지 얼굴 킴 만들기’를 오는 11월 8일 오후 1시와, 오후 4시 세미나실에서 두 차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차 당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양모펠트 공예는 양모 섬유를 습기, 열, 마찰, 압력 등으로 자극을 줘 서로 얽히게 한 다음 단단한 천(펠트)으로 만든 후

작업하는 공예다.

이번 체험행사에서는 양모를 사용해 비슴과 푸들 두 종류의 감아지 얼굴을 만들 예정이다.

강연은 양모펠트의 기본 원리와 재료, 종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도구 사용법에 대해 배우고, 체험 실습은 미리 준비된 원형의 얼굴에 눈, 코, 입 등 주요 부위를 직접 만들어 보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얼굴을 중심으로 외곽의 털을 덧붙여 입체감을 살리고, 귀 모양을 잡으면서 얼굴 비율을 맞춘 후 유광으로 디테일을 살려 마무리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클래식 발레 ‘돈키호테’ 내달 14일 김제문화예술회관서 개최

무대 위에 펼쳐지는 화려한 춤의 향연! 박진감 넘치는 클래식 발레 ‘돈키호테’가 오는 11월 14일 오후 7시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작품이다.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이국적 정취, 정열의 춤, 유쾌한 사랑이야기! 화려한 테크닉과 생동감 넘치는 드라마가 어우러진, 스페인 감성 가득한 발

레를 선사할 예정이다.

스페인 광장의 축제, 집시들의 뜨거운 춤, 그리고 꿈속에서 만나는 환상의 세계가 눈앞에 살아난다. 숨 가쁘게 이어지는 빠른 전개, 관객을 압도하는 화려한 테크닉, 웃음을 자아내는 유머러스한 연기와 달콤한 사랑 이야기까지 한국 발레의 정체성 구축을 모토로 창단된 M발레단이 화려하고 멋진 무대를 선보인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11월 4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곽노태 기자